

#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김종희, 김은향  
가천대학교

##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Attitude type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Jong-hee Kim, Eun-hyang Kim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고생 586명(여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자율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가 다른 경우(애정-통제일치, 적대-자율일치, 적대-통제일치, 불일치)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대-통제 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는 불일치 집단 부모의 자녀보다도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논의하였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적응에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 일치, 학교생활적응, 애정-자율, 적대-통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consistency. For this purpose, 586(306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their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and the differences were verified through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ental attitudes. Affection - autonomy cohort group's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groups. In addition, the hostility - control group were found to have lower adaptation level than the disagreement group. Based on this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influences of parental attitude and suggested the directions of follow up studies on parenting attitude and adaptation.

**Key Words** : Parental attitude, Consistency of parental attitude, School adaptation, Affection-autonomy, Hostility-control

Received 30 January 2017, Revised 28 February 2017  
Accepted 20 March 2017, Published 28 March 2017  
Corresponding Author: Eunhyang, Kim(Gachon University)  
Email: mac0509@gach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 적응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환경에 처해있어 학교생활 적응이 이 시기의 적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 건강한 성장 및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발달과업이다[2,3].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 적응을 대표하며,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4,5,6,7,8,9,10]과 또래 및 교사[11,12], 사회적 지지[13,14,15] 등의 관계적 요인, 자아존중감[16,17,18]이나 자기효능감[19,20,21,22,23,24], 자아탄력성[25,26], 낙관성[27] 등의 정서적 요인, 비합리적 신념[28]이나 스트레스[29,30,31,32] 등의 인지적 요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33,34,35] 등과의 관련성을 다룬 바 있다.

이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36,37,38]. 이는 청소년기가 주 양육자에 대해 의존적인 아동기와는 달리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39,40]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부모가 애정적 혹은 민주적 태도는 학생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39,41,42,43]. 반대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도한 기대, 심각한 가정불화를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며 학교생활 적응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44].

다만, 부모의 자율적·방임적 태도와 통제적·권위주의적 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일관되지 않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권위주의적일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5,46,47]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48],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9]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보다 면밀한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파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남녀의 전통적 역할 구분 완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합 패턴의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 패턴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양육 패턴의 일치 여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왔다. Dornbush 등 (1987)은 한 가정 내에서 하나의 양육태도만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37],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자녀에게 부정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50,51].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와 불일치 조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불일치 조합 내 세부 유형과 타 양육태도 유형을 비교해 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 조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른 부모의 부정인 양육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과 관련하여 부모의 실제 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5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보고식 결과에 비해 자녀의 적응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3,54]. 이는 자녀가 자신의 지각 양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자기 보고식 평가에는 자신의 행동에 사회 규범에 대한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53,5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부·모 양육

태도의 일치여부 및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16년 3월~6월에 걸쳐, 서울지역 5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임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였거나 누락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86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유효 설문대상 중 남학생은 280명(47.8%), 여학생은 306명(48.4%)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92명(49.8%), 중학생 294명(50.2%)이었다.

### 2.2 검사도구

#### 2.2.1 부모양육태도 척도

Schaefer[55]가 개발한 양육태도 척도를 임선화[56]가 수정 보완 하고, 박설아(2013)가 청소년에게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57]. 본 척도는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차원이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으로 양극화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를 양극단으로 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한 Schaefer[55]의 양육태도 모형에 근거하여, 4개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두 요인을 사용하였다[58].

각 요인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부

애정-적대 .86, 부 자율-통제 .70, 모 애정-적대 .83, 모 자율-통제 .78로 나타났다.

#### 2.2.2 학교생활적응척도

김용래[59]가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박상희(2010)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60].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규칙, 수업태도의 4개의 요인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교사관계 .70, 교우관계 .70, 학교규칙 .74, 수업태도 .76, 전체 .87이었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애정적 태도, 적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각각 애정-자율, 애정-통제, 적대-자율, 적대-통제의 4유형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인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전체 상관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고,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와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모두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애정적 태도 수

준 간, 그리고 부와 모의 자율적 태도 수준 간에는 각각 .7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 Correlation of parental attitude with school adaptation

Variable	1	2	3	4	5	6	7	8
1	1							
2	.58**	1						
3	.78**	.55**	1					
4	.51**	.76**	.63**	1				
5	.39**	.29**	.35**	.28**	1			
6	.44**	.34**	.41**	.33**	.47**	1		
7	.39**	.34**	.37**	.37**	.52**	.55**	1	
8	.34**	.33**	.36**	.35**	.45**	.39**	.49**	1

\*\* p < .01

1. father affection 2. father autonomy 3. mother affection 4. mother autonomy 5. Teacher 6. Peer 8. Class attitude 9. Rules

### 3.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양육태도 조합 패턴 유형의 빈도

양육태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 모두 애정-자율 유형이 각각 230명(39.2%)과 234명(39.9%)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대-통제 유형이 각각 198명(33.8%)과 188명(32.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버지 집단에서는 애정-통제 유형(82명, 14%)과 적대-자율 유형(76명, 13.0%)의 빈도가 거의 비슷했으나 어머니 집단에서는 애정-통제 유형(116, 19.8%)이 적대-자율 유형(48명, 8.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치 집단이 80%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합 유형중에서는 애정-자율형이 201쌍(34.3%)으로 가장 많았고, 적대-통제형(163쌍, 27.8%), 애정-통제(71쌍, 12.1%), 적대-자율형(36쌍, 6.0%) 순이었다.

<Table 2> Distribution according to type of parental attitude

type	parents(N=586)		
	father(%)	mother(%)	parents(%)
Affection-Autonomy	230(39.2)	234(39.9)	201(34.3)
Affection-Control	82(14.0)	116(19.8)	71(12.1)
hostility-Autonomy	76(13.0)	48(8.2)	35(6.0)
hostility-Control	198(33.8)	188(32.1)	163(27.8)
disagreement	-	-	116(19.8)

### 3.3 아버지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F(272642.845)=3.62 p<.001),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다[61]. <Table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213 p<.001), 구체적으로 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father's parental attitude by group

	Affection-Autonomy (N=230)	Affection-Control (N=82)	Hostility-Autonomy (N=76)	Hostility-Control (N=198)
	M(SD)	M(SD)	M(SD)	M(SD)
Teacher	3.92(.70)	3.60(.55)	3.40(.73)	3.35(.72)
Peer	4.13(.52)	3.95(.49)	3.87(.59)	3.61(.71)
Class attitude	3.68(.65)	3.37(.49)	3.35(.67)	3.14(.59)
Rules	3.94(.59)	3.62(.47)	3.57(.48)	3.39(.46)

<Table 4>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father's parental attitude typ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Tamhane
Father Parenting attitude	Teacher	.213***	26.30***	3	①>②,③,④ ②>④
	Peer		27.28***	3	①>②,③>④
	Class attitude		28.57***	3	①>②,③>④ ②>④
	Rules <sup>1)</sup>		25.44***	3	①>②,③,④

\*\*\*p<.001(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l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1) rules: Scheffé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는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Welch 값: 교사관계=24.84, 또래관계=24.76, 수업태도=27.67  $p<.001$ ), 학교규칙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적응은 Tamhane의 T2, 학교규칙 적응은 Scheffé를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양육태도 유형 중 애정-자율형 집단이 모든 영역(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서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애정-통제집단과 적대-자율 집단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적대-통제 집단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사관계와 수업태도 수준에서는 애정 집단(자율, 통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학교규칙과 관련해서는 애정-자율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3.4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F(130829.247)=2.97$   $p<.001$ ),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다[61]. <Table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218  $p<.001$ ), 구체적으로 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고(Welch 값: 또래관계=27.05, 수업태도=28.97, 학교규칙=22.25  $p<.001$ ), 교사관계는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적응은 Tamhane의 T2, 교사 관계는

Scheffé를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 중 애정-자율형 집단이 교사 관계, 수업태도의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또래관계와 학교규칙 영역에서는 통제 집단(애정, 적대)에 비해 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통제 집단과 적대-자율 집단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적대-통제 집단의 경우 또래관계와 학교규칙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고, 교사관계와 수업태도 수준에서도 애정 집단(자율, 통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보고되었다.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parental attitude by group

	Affection-Autonomy (N=234)	Affection-Control (N=116)	Hostility-Autonomy (N=48)	Hostility-Control (N=188)
	M(SD)	M(SD)	M(SD)	M(SD)
Teacher	3.88(.70)	3.63(.60)	3.42(.68)	3.32(.75)
Peer	4.12(.53)	3.952(.52)	3.90(.65)	3.58(.68)
Class attitude	3.69(.65)	3.37(.50)	3.34(.69)	3.12(.60)
Rules	3.91(.60)	3.64(.48)	3.72(.50)	3.42(.58)

<Table 6>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mother's parental attitude typ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Tamhane
mother Parental attitude	Teacher <sup>2)</sup>	.218***	23.54***	3	①>②,③,④ ②>④
	Peer		30.23***	3	①>②,④ ②,③,>④
	Class attitude		30.55***	3	①>②,③④ ②>④
	Rules		24.34***	3	①>②,④ ②,③,>④

\*\*\* $p<.001$ (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l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2) Teacher:Scheffé

### 3.5 부모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

교규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8>과 같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F(101804.663)=3.07 p<.001),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다[61]. <Table 8>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Pillai's Trace=.213 p<.001), 구체적으로 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네 개의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ental attitude by group

	Affection-Autonomy (N=201)	Affection-Control (N=71)	Hostility-Autonomy (N=35)	Hostility-Control (N=163)	discord (N=116)
	M (SD)	M (SD)	M (SD)	M (SD)	M (SD)
Teacher	3.92 (.71)	3.61 (.56)	3.34 (.71)	3.32 (.75)	3.58 (.66)
Peer	4.16 (.51)	3.94 (.51)	3.90 (.70)	3.55 (.71)	3.89 (.54)
Class attitude	3.73 (.64)	3.36 (.49)	3.35 (.71)	3.12 (.61)	3.32 (.57)
Rules	3.95 (.60)	3.60 (.46)	3.73 (.52)	3.43 (.58)	3.67 (.53)

<Table 8> Post-test results according to type of parental attitud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illai's Trace	univariate F	df	Scheffé
parental attitude	Teacher	.236***	18.28***	4	①>②,③,④,⑤,
	Peer <sup>3)</sup>		23.90***	4	①>②,⑤>④
	Class attitude <sup>4)</sup>		24.42***	4	①>②,③,④,⑤, ②⑤,>④
	Rules		19.76***	4	①>②,③,④,⑤, ⑤>④

\*\*\*p<.001(①Affection-Autonomy, ②Affection-Control, ③Hostility-Autonomy, ④Hostility-Control, ⑤disagreement) 3),4) peer, Class attitude: Tamhane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또래관계, 수업태도 적응은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Welch 값: 또래관계=21.31, 수업태도=22.71 p<.001),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은 Scheffé, 또래관계, 수업태도는 Tamhane의 T2를 활용하여 사후검증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종속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유형 중 애정-자율 일치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또래관계의 영역에서는 애정-통제 일치, 적대-통제 일치, 불일치 집단에 비해 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통제 일치와 적대-자율 일치, 불일치 집단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대-통제 집단의 경우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에서 애정-자율과 애정-통제 일치 집단 및 불일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수업태도 수준에서도 애정-자율 일치와 불일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사 관계 영역에서는 애정-자율 일치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부모 양육태도의 일치 여부 및 조합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62,63,6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면서 통제적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적대-통제형 아버지의 자녀 집단의 또래관계 수준이 다른 세 집단 보다 낮고, 교사 관계 및 학습태도 수준

에 있어서 애정 집단(애정-자율, 애정-통제)에 비해 낮으며, 학교규칙 수준에서도 애정-자율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특히 애정적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자율형 어머니의 자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관계, 수업태도 영역의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또래관계, 학교규칙의 영역에서는 통제 중심 집단(애정-통제, 적대-통제)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간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63,64,65,6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적대-통제 유형 어머니의 자녀 집단은 또래관계와 학교규칙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교사 관계와 수업태도 적응 수준이 애정 중심 집단(애정-자율, 애정-통제 집단)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태도가 애정-자율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적응 수준이 가장 높고, 거부-통제적일 때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이 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67]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적대적이면서 통제적인 어머니의 자녀집단이 애정적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교사관계와 수업태도 수준이 낮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적대-통제적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행동에 대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축된 자녀[55]가 어머니와 비슷한 성인인 교사와의 관계 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교사관계, 또래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68,69]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양육태도 일치 여부 및 조합 유형 중 애정-자율 일치형인 집단이 교사 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영역에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또래관계의 영역에서는 통제 중심 일치 집단(애정-통제 일치,

적대-통제 일치) 및 불일치 집단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적대-통제 유형 부모의 자녀 집단의 경우 교우관계와 학교규칙 적응 수준에 있어서 애정 중심 일치 집단(애정-자율 일치, 애정-통제 일치)은 물론, 불일치 집단보다도 낮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70],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 만이라도 적대-통제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적응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적응 간 관계에서 애정-자율적 태도와 적대-통제적 태도는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부모 모두 적대-통제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 된 경우보다도 자녀의 적응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자율적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거부적이고 통제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합일이 어려울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불일치 조합의 세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일치 여부와 세부 조합 패턴에 따른 자녀의 적응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약 80% 이상의 부모가 양육태도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과, 이 중 애정-자율적 양육태도가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의미가 있으나, 양육태도 불일치 부모의 경우 세부적 조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 내 세부 조합과 적대-통제 일치형 조합의 비교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및 연령의 조절 효과 탐색이 요구된다. 심리학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남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 여부, 조합의 영향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뿐 아니라, 부모의 자기 보고식 양육태도 유형도 조사하여, 부모와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태도 유형의 일치 여부 및 조합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본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극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 양육태도 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자녀의 적응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종단연구를 실시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적 개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1] K. A. Lee, H. H. Ju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No. 1, pp. 693-704, 1999.

[2] K. H. LEE, H. Y. JU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19, No. 1, pp. 8-18, 2007.

[3] H. Y. PARK, S. H. KANG, "The Relationships of the Perceived Attachment,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51, pp. 43-55, 2011.

[4] W. D. Kim,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aring-Attitude Perceived by High-School Students,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5] S. J. Kwon, H. J. Lee,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188-195, 2014.

[6] C. O.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7] M.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8] N. R. Lim,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chool Adjustment : Focused on Specialized High School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2.

[9] M. Y. J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hild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2012.

[10] J. A. Beak, S. M. Song,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27-337, 2016.

[11] S. H. Le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nd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12] I. J. Kong, "Parents and teachers of high school students ·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13] S. Y.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of Optimism and Pessimism to School Adjust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14] M. S. Park,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Master's thesis, Gyungwoon University, 2011.

[15] S. J. Park,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 2, pp. 287-293, 2016.
- [16] Y. G. Kim,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 Adjustment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 [17]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2.
- [18] C. S. Lee, H. R. Seon, H. Y. Jang, "Effects of Self-esteem, Aggression and Violence Recogni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8-36, 2016.
- [19] M. H. Kim, J. R. Jeon, S. A. Hong,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23-129, 2016.
- [20] H. K. Koo, "4A Study on the Effect of Science-gifted High School Students' Perfectionistic Disposition and Support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1.
- [21] M. H. Son, "Relationship of Attitude toward Appearance to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er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8.
- [22] J. J. Choi,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High-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2009.
- [23] Y. Choi, W. S.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 455-463, 2014.
- [24] S. N. Seo, S. K. Lee, S. H. L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27-333, 2012.
- [25] M.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Ego Resilience and Adapting to School Life in a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2013.
- [26] M. J. Kwon, "The Effects of Specialized High-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Parenral Support and School Life Adujstment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2013.
- [27] M. H. Kang, "The effects of a Gratitude Program on Children' s Optimism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28] S.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3.
- [29]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23-129, 2016.
- [30] H. R. Kim, J. K. Park, E. J. Choi, "Comparison 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Gifted and General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4, No. 1, pp. 305-322, 2013.
- [31] M. S. Ro,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adap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32] B. J. Ja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1, pp. 29-38, 2012.
- [33] E. S. Ch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Kyonggi-Do Province",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3.
- [34] H. S. Lee,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wandong University, 2008.
- [35] S. h. Yong, "Relationships among Severity of Smartphone addiction, Self-efficacy,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3.
- [36] Bronstein, P., Clauson, J. Frankel, M. F., & Abrams, C. 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Vol. 42, pp. 268-276, 1993.
- [37]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Vol. 58, pp. 1244-1257, 1987.
- [38] Steinberg, L., Elmen, J., & Mounts, N. S.,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60, pp. 1424-1436, 1989.
- [39] Y. R. Kim, K. H. Lee,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2, No. 4, pp. 125-143, 2011.
- [40] J. G. Kim, K. H. Lee,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3, pp. 1183-1200, 2008.
- [41] A. J. Yoo, J. S. Lee, J. H. Suh, "Relation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No. 3, pp. 161-180, 2004.
- [42] S. Y. Lim, "The Impact of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2, No. 4, pp. 339-379, 2006.
- [43] S. H. Choi,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s' Raising Methods on Children's Self-Conception and School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 9, No. 2, pp. 189-211, 2009.
- [44] K. H. Ryu,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1, No. 12, pp. 147-168, 2003.
- [45] Y. A. Jang, J. H.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2, pp. 67-85, 2008.
- [46] S. R. Kwak,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6, No. 1, pp. 1-26, 2006.
- [47] Y. J. Kwon, Y. H. Kim,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 Adolescents' Self-Regulation on Online Game Overflow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6, pp. 99-121, 2011.
- [48] S. Y. Lim, "The Impact of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2, No. 4, pp. 339-379, 2006.
- [49] J. H. Lee, J. M. Tak,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Dongshin University*, pp. 209-227, 2004.
- [50] S. S. Oh,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n and the affective characteristic of parental child-rearing style", *Research Note*, Vol. 11, No. 1, pp. 1-15, 1982.
- [51] K. A. Jeong, B. H. Kim,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89-308, 2015.
- [52] J. H. Kim, G. Y. R. Ahn,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or School Adjustment: Self-Regul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4, pp. 823-836, 2013.
- [53] Conzales, N. A., Cauce, A. M., & Mason, C. A., "Interobserver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parental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frican American mothers, daughters, and independent observers",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483-1498, 1996.
- [54] Paulson, S. E.,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and

- parental involvement with ninth-Grade students' achievement", *J. Early Adolescence*, Vol. 14, pp. 250-267, 1994.
- [55] Schaefer, E. S.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pp. 226-384, 1959.
- [56] S. H. L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gn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8.
- [57] S. A.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 Ph. 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3.
- [58] P. J. Oh, "Difference in Childen's Self-Concepts Following Correspondence i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59] Y. R. Kim.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Its Antecedent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 Vol. , No. 9, pp. 5-113, 1993.
- [60] S. H.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Resilience,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10.
- [61] Mertler, C. A. & Vannatta, R. A.,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ed.). LosAngeles:Pyrczak. [Contribution = 25% revised conceptual material], 2005.
- [62] G. S. Kim, J. J. Yoon, S. H. Lim, "The Causal Relational of Children's Social Maturity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iy Childhood Education*, Vol. 9, No.2, pp. 277-295, 2004.
- [63] J. M. Park, "Pre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prosoci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rearing attitud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5.
- [64] B. W. Jo, "The Relationship of Parent Rearing Attitudes and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between Parents to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4, pp. 96-119, 2009.
- [65] G. H. Shi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on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 [66] H. S. W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optimism and parenting behavior and the soci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9.
- [67]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6th ed). N.Y.: Mcgraw-Hill Book Co, 1887.
- [68] N. S. Son, S. H. Lee,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social abilities from age 4 to age 6",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2, pp. 49-77, 2008.
- [69] J. H. Yoo, "A Study of Parental Role affecti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70] J. Y. An, "A Stud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Maternal Behavior Related to maternal employment variable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1992.

**김 중 희(Kim, Jong Hee)**



- 2014년 8월 : 대구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심리상담학석사)
- 2010년 9월 ~ 현재 : 전문상담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 E-Mail : jummakjh@hanmail.net

**김 은 향(Kim, Eun hyang)**



- 2012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교육상담) 박사 취득
- 2015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중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상담,
- E-Mail : mac0509@gachon.ac.kr